

24년 12월 목회일정

8일(주일)	입교 및 성찬입회식(김성재 이은수)
15일(주일)	결산 및 예산 공동의회
22일(주일)	성탄주일
29일(주일)	2024년 임시직분자 임명(4/4분기특별헌금)
	뉴웨이브교회 공동의회
9일(월)	결산 및 예산위원회(재정심방보고)
19일(목)	3교회(로뎀장로 샘터)목회자 모임(본교회당)
25일(수)	성탄절 모임

주간소식

환영합니다	예배에 처음 나오신 분을 주 안에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담임목사를 만나시고, 돌아가세요
1. 성찬예식	/ 매일 예배와 성찬상을 위하여 자신을 살핍시다. [본 교회 당회의 허락을 받은 입교인이 참여합니다]
2. 오후예배헌금	/ 장학목적(고려신학대학원)
3. 성탄주일	/ 오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심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오전예배 후 유년주일학교의 축하공연이 있습니다)
4. 성탄절모임	/ 바나바주최 25일(수) 오전9:30
5. 연합당회	/ 오늘 점심식사 후에 교육관 1에서 모이겠습니다.
6. 임시직분자 임명식	/ 다음 주일 오전예배 후에 있습니다.
7. 분기특별헌금	/ 다음 주일에 4/4분기 특별헌금이 있습니다.
8. 교회달력	/ 2025년 달력 탁상용(가정당 각 2부씩)
9. 가정(개인)기도회	/ 밴드에 올려지는 아침묵상과 기도제목, 주보의 [설교요약지], 가정성경읽기 등을 참고하세요.

한 주간도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마시고,
전투적인 사명을 다 하며 승리하는 삶 되세요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소속으로
1997년 1월 개혁주의교회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교회는 이 일을 위해 예배 안에서 참된 교회의 3가지 표지인
① 진지한 말씀의 강단 구축(설교, 강도)
② 성례의 정확하고 성실한 거행(세례, 성찬)
③ 정당하고 올바른 권징의 시행(권고, 치리)을
애쓰며 노력하는 언약공동체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동래언약교회 집회안내

주일 예배	오전	11:00
	오후	15:00
주간 기도 회	아침기도	06:00(월-금)
	수요저녁	20:00
	지역기도회	각지역결정
	금요독서회	20:00
교회 학교	유/SFC	주 13:00
	교회알기	주 13:30
	청년회	주 14:00

이 달의 봉사자

	12월	25.01월
교회소식	고충석	고충석
봉 헌	강정희	김낙형
안 내	노주혜	조안나

평균케 하는 원리

후원	개 혁 정 론(고신 개혁 언론)
	파 서 교 회(고신,강인중)
선교	외국인근로자선교(이요한)
구제	신정민선교사(선교사역준비)
	국 성 연 화 교 회 (최 지 혁)
	부산장애인전도협회(정용균)
장학	고려신학대학원(최승락원장)

교회봉사자

- 시무목사 / 최성림 양주동
- 시무장로 / 김영민 고충석
- 시무집사 / 이경준 김낙형
- 반 주 / 문경실

주후 2024.12.22(제28-51호)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의 터 위에 든든히 서 가는 교회(행20:32)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래언약교회

DONGNAE COVENANT *presbyterian* Church

주일오전예배

오전11시

인도 최성림 목사
설교 최성림 목사

교회소식

개 회

* 예배에로의부름 ↑ 요1:14(교송)

인도자 :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회 중 :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 축 복 의 인 사 ↓ 고전1:3(다함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좇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 경 배 찬 송 ↑ 찬송12장(3-5)

죄의고백

* 십 계 명 봉 독 ↓ 신 5장(주계명/봉독)

* 죄 의 공 적 고 백 ↑ 제 3형

* 용서의은혜의선포 ↓ 인도자

* 감 사 찬 송 ↑ 찬송22장(1-2b)

말씀봉사

설교를위한기도 ↑ 인도자

성 경 봉 독 ↓ 사9:1-2 눅2:25-333

선포를위한찬송 ↑ 찬송18장

설 교 ↓ 설교자

이방을 비추는 빛

아 멘 송 ↑ 찬송가643장

성례시행

세 레 식 ↓ 필요시 시행

성 찬 식 ↓ 초대 신앙고백 찬송46장(1a-b) 구제헌금 분봉 분잔

목 회 의 기 도 ↑ 설교자

봉사사역

봉 헌 및 봉 헌 찬 송 ↑ 찬송15장

폐 회

* 강 복 선 언 ↓ 설교자

*는 일어서서(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가셔도 됩니다)

47739

부산시 동래구 명륜로 261-1

예배당 051) 558-4890

목사관 010-4564-4890

www.dcpchurch.com

<div> <div>주일오후예배</div> <div>교회소식</div> <div>개회</div> <div> * 예배예로의부름 ↑ <div>인도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div> <div>회 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div> </div> <div> * 축복의인사 ↓ <div>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얹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div> </div> <div> * 경배찬송 ↑ <div>시편67편(2-3)</div> </div> <div> <div>신앙고백</div> <div> * 신앙고백 ↓ <div>사도신경(고신총회)</div> </div> <div> * 감사찬송 ↑ <div>찬송22장(3-5)</div> </div> <div> <div>말씀봉사</div> <div> <div>설교를위한기도 ↑ <div>인도자</div> </div> <div> <div>성경봉독 ↓ <div>시 115:1-8</div> </div> <div> <div>교리문답교독 ↓ <div>하이델베르그94-95문답</div> </div> <div> <div>선포를위한찬송 ↑ <div>시편115편(3-6)</div> </div> <div> <div>설교 ↓ <div>설교자</div> </div> </div> </div> <div> <div>하나님만 섬기라</div> <div> <div>아멘송 ↑ <div>찬송가643장</div> </div> <div> <div>자비사역</div> <div> <div>봉헌및봉헌찬송 ↑ <div>찬송9장(1-3,13)</div> </div> <div> <div>폐회</div> <div> <div>* 강복선언 ↓ <div>설교자</div> </div> </div> </div> </div> </div></div></div></div></div></div></div></div></div>	<div> <div>오후 3시</div> <div>인도 설교</div> <div>양주동 목사</div> <div>양주동 목사</div> </div>	<div>주간기도회</div> <div> <div>아침기도회</div> <div>월~금 6시(교회밴드)</div> <div>요한복음 묵상</div> <div>인도 : 최성림 목사</div> </div> <div> <div>수요기도회</div> <div>수요일 20시(예배당)</div> <div>[말씀·고백·삶]</div> <div>인도 : 최성림 목사</div> </div> <div> <div>지역기도회</div> <div>인도 : 최성림 목사</div> <div>* 동부(수, 09:30)</div> <div>인도 : 양주동 목사</div> <div>* 김해(수, 19시)</div> </div> <div> <div>이야기성경</div> <div>87. 느헤미야</div> <div>56. 밧모 섬에 갇힌 요한</div> </div> <div> <div>주간성경읽기</div> <div> <div>주일</div> <div>렘46-47</div> <div>계 17</div> </div> <div> <div>월</div> <div>렘48-49</div> <div>계 18</div> </div> <div> <div>화</div> <div>렘 50</div> <div>계 19</div> </div> <div> <div>수</div> <div>렘51-52</div> <div>계 20</div> </div> <div> <div>목</div> <div>애 1-2</div> <div>계21:1-8</div> </div> <div> <div>금</div> <div>애 3-5</div> <div>계21:9-27</div> </div> <div> <div>토</div> <div>말 1-4</div> <div>계 22</div> </div> </div>

주일설교를 기억하며(이방을 비추는 빛)

1.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주님의 때를 분별하며 그 날을 볼수록 더욱 의와 경건에 이르는 삶되게

2. 주의 강림하심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주의 영광의 날까지 동일한 신앙의 길 걷게

3. 신앙의 길을 걷는 동안 교회 안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빛을 통하여 소금과 빛의 사명 감당하게

고려신학대학원(원장:기동연교수)

1. 주께서 교회 안에 예비해 두신 신실한 말씀사역자들이 많이 일어나 교회의 본질적사명 회복하게

2. 신대원의 신실한 시대의 정신을 이기고 개혁신앙의 정통과 순교적 신앙을 바르게 전수하게

3. 교수들이 교회의 교사로서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늘 있게 하시고, 바른 신학과 삶을 가르치도록

학교법인 고려학원을 위하여

1. 고신대학교를 통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주의 주시는 힘과 지혜로 탁월하게 잘 진행되도록

2. 신대원의 신실한 사역자들의 배출을 위하여 고신교회와 각 노회, 교회가 함께 전력할 수 있도록

3. 복음병원이 의정갈등 속에서 신앙과 사랑으로 병자들을 돌보는 세상과 구별된 병원이 되도록

나라의 안위와 위정자들을 위하여

1.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의 안년을 위하여' 세움받은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2. 탄핵정국의 국정공백을 공직자들이 직임을 책임있게 감당하며, 국민들도 분별력있는 행동하게

3. 교회들이 세속정치의 기득권을 탐하는 우상숭배의 길을 버리고 왕과 제사장의 직임 감당하게

왕처럼 살고 싶습니다? 왕처럼 나누어주고 싶습니다?(4)

(클라리온(Clarion) vol 71. No 11 / 개혁정론에서)

릭 밴더호스트 목사(Grace Canadian Reformed Church)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나누어야 합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 속에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나누어 주면서 살아가는 왕의 삶이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갖지 말아야 할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모두는 지금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자비로우신 왕이시며, 우리는 그분이 주신 선물들을 즐기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은 우리를 더욱 기쁘게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으면, 그것을 사용할 때마다 선물을 준 사람을 생각하며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경계할 것은 돈과 소유에 지배를 받는 유혹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 관리와 같은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의 돈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 번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를 받기 위하여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쁨으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셨으며, 또한 모든 좋은 것들을 함께 주시는 분임을 알기 때문입니다(롬 8:32). 이제 우리는 자비로우신 왕이신 하나님의 선물을 즐거워하는 삶과 돈, 소유에 의하여 지배를 받는 삶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한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킹사이즈의 침대를 사야만 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같이 나누는 왕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끝)

왕이 떠나간 교회(예전에 쓴 글 중에서-교회카페에 있음)

...라오디게아교회는 예수님을 문밖으로 내 쫓는 순간 모든 것은 가난해 지고 말았다. 물론 라오디게아교회는 여전히 물질적으로 풍요로웠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랑할 만큼... 그러나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근본이신 예수님께서는 ‘니가 가련하고 곤고하다고, 가난하고 헐벗었다고, 심지어 눈이 멀었다’고 진단하셨다. 그래서 ‘너가 불로 잘 연단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렸으면 좋겠다고, 점점 네 안력이 약해져가는데 안약을 사서 발랐으면 좋겠다’고 권고하신다.

라오디게아교회가 가난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교회가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문밖에 내 몰아 버렸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교회에 보내신 편지를 보면 그분은 당신이 지금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이 말은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쫓겨나셨다(떠나셨다)는 말이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돌이켜 주님을 다시 교회의 주인으로, 머리로 모셔드리지 않는다면 그 영적 궁핍으로 인하여 서서히 죽어갈 것이다. 아니 주인의 아들을 쫓아낸 일로 인하여 주님의 집에서 쫓겨나 바깥 어두운데서 이를 갈게 될 것이다.(마25:42-43)

이 이전에 섬겼던 애굽은 그들을 종으로 삼았습니다. 게다가 그곳에서 종노릇한 삶은 ‘죽음’입니다. 애굽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아닌 다른 신들이나 피조물들을 섬겼을 때에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1계명을 통해서 언약백성이 비참한 상태에 이르지 않도록 보호하십니다. 구원해주셨을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생명과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이 깨지지 않도록 지키십니다.

1계명에서 “나 외에는”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내 앞에서”라는 말을 의역한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앞에 언약백성을 서게 하십니다. 언약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하여 언약백성이 다른 헛된 것들을 섬기지 않도록 도우십니다.

2. 우상 숭배란?

“다른 신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신들은 헛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 배후에는 귀신들이 있습니다(고전 10:20). 귀신은 사람들이 헛된 것을 섬겨서 하나님께 가야 할 경배를 가로챍니다. 이런 악한 영들은 시대와 지역마다 다른 우상들을 만들어냅니다. 날씨의 신, 바다의 신, 전쟁의 신, 또 ‘돈’이라는 신도 있지만,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신이 있습니다. 그건 “자기 배”입니다(빌 3:19). 사람들이 헛된 신들을 만들어내어 섬겼던 이유는 결국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돈 자체에 의미가 있다기보다 인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서 돈이 필요했던 겁니다.

물질만능주의 사회에서는 돈이라는 신이 가장 위험한 우상일 겁니다. 하지만 세상도 돈만 좇는 탐욕을 경계합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좀 더 고상한 가치를 좇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추구하는 행복은 죄인 자신의 자기만족에 불과합니다. 행복의 기준도 사람마다 제각기 다릅니다. 사람마다 만족하는 기준이 다른 것이죠. 결국 행복이란 것도 사람의 욕망을 채우는 하나의 방편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만족과 기쁨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요리문답(94문답)은 “내 영혼의 구원과 복이 매우 귀한 것이기 때문에” 1계명을 지킨다고 고백합니다. 내 영혼의 구원과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당연한 이유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시편 115편에서 우상은 헛되다고 합니다. 그런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나 섬기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단에 빠진 사람을 보면 그들은 영혼이 떠나간 사람처럼 보입니다. 실상 하나님을 떠난 모든 죄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모두 귀가 있어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참된 고백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모두가 우상숭배자이며, 모두가 헛됩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에서 나아가 우리 하나님만을 마음과 생명과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할 때에 우상 숭배같은 망령된 죄에서 자연스럽게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는 고백이 변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동래언약교회 가정기도회[2024년12월22일 주일오전]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송	찬 122장
성경봉독	눅2:25-35 사9:1-2
설 교	이방을 비추는 빛	부모대독
기 도	부 모
주기도문	다 같 이

주제 : “성령의 사람 시므온이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 증거하였다”

아기 예수님께서 율법을 따라 결례의 날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에 시므온이라는 노인이 예수님을 ‘온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그리스도’라고 부르며 찬양하였습니다.

1.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심”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그리스도를 보고야 죽을 것이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는 성령의 지시와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한 아기를 보고 그가 바로 자신이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했던 그리스도이심을 알았고’, 오순절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성령의 강동하심을 받아 아직 어린 아기인 예수님께서 처음 성전으로 나아오신 것을 보고 성령님의 강동을 따라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고, 아브라함이 성령에 감동으로 이삭이 태어나는 것을 기다리고 볼 때 장차 그리스도의 오실 것을 보고 기뻐하였던 것을 보았다고 즐거워했던 것처럼 그는 아기 예수를 주시라,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수많은 세월동안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다려 왔습니다. 당세에 경건한 자였던 시므온은 오랫동안 성전에서 ‘자신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였을 것입니다. 마치 당대에 의인이었고, 당세에 완전한 자였던 노아가 120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강림하셨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선포했던 것처럼, 당대의 의인이요, 당세에 경건한 자였던 시므온은 오랫동안 성전에서 ‘자신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시므온의 때에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시므온에게 안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29)

오직 성령으로 난 자 만이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시므온에게 아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증거하신 성령님께서는 이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중에 주의 오실 것을 죽지 않고 볼 자도 있음을 알리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갈 때에 주의 낫을 밟을 것을 약속하십니다. 시므온이 성령님의 증거하심을 믿고 그리스도를 기다린 것처럼, 그리고 그 날에 그리스도를 보고 주의 안식을 찬양한 것처럼 성령의 증거하심을 받는 영광가운데 다시 오시마 하신 약속을의

회하며, 그 날을 볼수록 더욱 의와 경건함으로 살아가야겠습니다.

2. “행하실 구원의 사역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심”

선지자 시므온은 아주 갓난아기에 불과한 예수님을 보았지만 그 아기가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그리스도임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알고 그분이 행하실 구속사역을 노래하였습니다.

1) “주재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 도다” 이 말은 그가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시는 주의 그리스도를 만나 뵈옵기를 정말 간절하게 기다렸고, 애타게 기다렸다’고, 이제 그렇게 기다리던 이스라엘의 위로를 자기의 눈으로 직접 보았으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고백은 시므온이 그의 시대에 주의 백성들이 야웨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패역한 길로 행함으로서 교회 안에 악인의 강포와 불의가 가득한 것으로 인해, 오랫동안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음을 드러냅니다. 이스라엘 안에 평안이 없는 것은 주의 백성들이 야웨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패역한 길로 행함으로서 교회 안에 악인의 강포와 불의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그때부터 교회는 더 이상 평안이 없습니다. 위로가 없습니다.

시므온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지금 시므온이 살고 있는 시대는 어두움의 시대라는 말입니다.

2) ‘이는, 곧 그리스도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는 말은 놀라운 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백성들은 메시아가 육신으로 이스라엘된 자신들을 저 로마의 포로된 집에서 인도하여 낼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예수님이 ‘이방을 비추는 빛이’시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사7:1-2) 곧 시므온은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리스도의 사역은 모든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신 약속으로(창 12:1-3, 22:17-18) 성령님이 오신 후 성취되지만 시므온은 그리스도의 나심을 보면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소개한 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출14:17-18,15:6,19:16-20,사40:5,60:2,요1:14, 12:20ff, 마2:2,눅2:14) 모든 성경은 예수님께서 오심이 바로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위에 임한 것이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므온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부르는 것은 이 아기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와 함께 하심을, 임마누엘이 되심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 “이방의 빛이요, 영광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열국을 그분의 영광가운데로 나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입니다. ‘전에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하나님도 없던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위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권속으로, 주의 기업의 상속자가 되어졌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볼 때에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구원의 사역을 보았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방을 비치시는 빛이심을, 온 이스라엘의 영광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증인들입니다. 아멘

동래연약교회 가정기도회[2024년12월22일 주일오후]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송	찬 314장
성경봉독	시 115:1-8
설 교	하나님만 섬기라	부모대독
기 도	부 모
주기도문	다 같 이

주제: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십니다.”

94문: 제1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내 영혼의 구원과 복이 매우 귀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온갖 우상숭배, 마술과 점치는 일과 미신,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에게 기도하는 것을 피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만을 신뢰해야 하며, 모든 겸손과 인내로 그분에게만 복종하고, 모든 좋은 것들을 오직 그분에게서만 기대하며,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분만 섬겨야 합니다. 그러하므로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피조물을 포기합니다.

95문: 우상 숭배란 무엇입니까?

답: 우상 숭배란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대신, 혹은 하나님과 나란히, 다른 어떤 것을 신뢰하거나 고안하여 소유하는 것입니다.

제1계명은 다른 계명들의 시작이며, 전체 율법의 기초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섬긴다는 이 신앙은 기독교 신앙을 잘 보여줍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나 다른 방법으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서문과 제1계명

십계명의 서문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인지 소개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야웨이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면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조상과 한 언약대로 그들을 구원하고 인도하셨습니다. 야웨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의 관계는 “언약 관계”입니다. 이를 십계명 서언에서 잘 보여줍니다.

십계명의 내용들은 언약 관계에서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부 언약백성이 지켜야 할 의무만 있습니다. 그러나 계명을 잘 살피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의무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일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1계명은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금지합니다.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성향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나타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